

오병윤·김선동(당권파)·윤난실(비당권파)이 본 통합진보당 사태·해법

당권파 “조사위 일방적... 비례 사퇴안돼”  
비당권파 “부정선거 명백... 국민에 사과를”

“분당 있을 수 없다” 한목소리

19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부장·부실경선 사태와 해결책을 놓고 통합진보당의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통합진보당 내에서도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계파 별로 엇갈리고 있다. 당권파인 김선동 의원과 오병윤 당선자는 당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있었으며 비례대표 후보 사퇴를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비례대표 후보 13명 윤난실 광주시당 공동위원장은 부정·부실경선이 명백한 만큼 비례대표 후보 전원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자신도 비례대표 후보를 사퇴했다. 하지만, 분당 우려에 대해서는 모두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했다. 우선 당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에 대해 오 당선자는 8일 광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어제 대표단과 당선자 간 간담회에서 비당권파는 부실한 조사라는 점과 진상조사위가 당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오병윤 당선자 김선동 의원 윤난실 위원장

“총체적 부정으로 발표하고 나서 당이 혼란스러워진 것에 대해 조사위마저 사과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조준호 진상조사위원장은 조사위를 누구로 구성했는지,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조사결과가 무엇인지를 발표시점 이전까지 당 어디에도 보고하지 않았다”며 “구체적 사실에 대해 왜곡돼 있거나 거짓으로 왜곡되거나 한 것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위원장은 이날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조사위에 수사권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선거인)명부보다 투표용지가 많았을 뿐 아니라 투표용지가 동량으로 접혀 들어가고 대리투표가 있는 등 부실·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이런 조사 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혁신을 안하겠다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전국운영위원회의 ‘대표단과 비례대표 후보 전원 사퇴’ 권고안에 대해서도 오 당선자는 “아무리 근거 없이 부정이라고 발표해놓고 무조건 사퇴하라는 것은 지나치게 정치적인 것”이라며 “정확한 실제 규명 없이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은 안 된다. 마녀사냥이다”고 반대했다. 김 의원은 진상조사위를 다시 꾸려서 전면 재조사하기 전까지 사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반해 윤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당이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하며 그 출발이 대표단과 비례대표 후보가 사퇴하는 것”이라며 “나아가 우리 안에 누가 더 잘못이 있는지, 부정이 더 있는지 부분은 내부의 문제며 그것은 제도 보완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크든 작든 잘못이 명백히 있었다”며 “진보정당으로서

이준석, 문재인 목жал린 만화 올려 논란

자신 페이스북 링크 비단일자 삭제·사과

새누리당 이준석 비상대책위원회 임기 종료 앞두고 헛발질을 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과 관련된 패러디 만화를 올려 명예훼손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이 비대위원은 지난 7일 한 트위터 이용자로부터 받은 9컷짜리 삼국지 패러디 만화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만화의 장면은 관우가 전투에서 적장의 목을 베 바닥에 던지는 내용인데, 문제는 관우 얼굴에 부산 사상을 문재인 대장마로 출마했던 손수조 후보, 목이 잘린 적장 얼굴에는 문재인 상임고문, 조조 측근의 얼굴엔 이준석 비대위원의 사진이 합성돼 있다는 것이다. 이 비대위원은 만화를 올린 지 40분 만에 즉각 삭제했지만 이미 네티즌 사이에서 비난 여론이 들끓기 시작한 뒤였다. 그는 8일 문 상임고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과했고, 문 고문은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답했다. 그는 통화 직후 문 상임고문을 직접 만나기 위해 공항에서 한 시간을 기다렸으나 만나지 못했고, 결국 이날 서울 여의도 금산빌딩 로비에서 만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민주통합당은 이 비대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이준석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 SNS에 올려 논란에 휩싸인 패러디 만화 일부. 4·11 총선 당시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와 맞대결 했던 문재인 당선자의 목이 잘린 장면이 묘사돼 있다.

‘통영의 딸’ 신숙자씨 사망

북, 유엔에 통보

북한이 ‘통영의 딸’로 알려진 신숙자(70)씨가 1980년대부터 돌아오던 간섭으로 사망했다고 유엔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북인권단체인 북한반인도범종철폐국제연대(ICNK)는 8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이 이런 내용을 담아 유엔에 보낸 A4 1장 분

량의 답변서함을 공개했다. 북한 당국은 서한에서 “(신씨의 남편) 오길남 씨가 가족을 버렸고 또 두 딸의 어머니(신씨)를 죽음으로 내몰았기 때문에 신씨의 두 딸은 오씨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오씨를 만나는 것을 강력히 거부했으며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또 “신씨 모녀가 임의적 구금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길남씨는 북한의 답변서함에 대해 “전형적인 거짓답변”이라며 “북한의 근거 없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ICNK 측은 “북한 당국은 신씨가 언제 어디서 사망했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며 “북한은 사망증명서를 공개하고 신씨의 유해를 남편인 오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ICNK는 지난해 11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뉴욕대표부를 통해 유엔 임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에 신씨와 두 딸(오혜원, 오규원)의 구출을 청원했다. /연합뉴스

12일 승촌보서 영산강문화관 개관 행사

알 카에다 美항공기 테러 음모 적발

국토해양부는 오는 12일 4대강 살리기추진본부, K-water와 광주 남구 승촌보에서 영산강문화관 개관행사를 연다. 영산강문화관은 한강문화관과 금강문화관에 이어 세번째로 공식 개관하는 4대강 문화관으로, 연면적 3426㎡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1층과 2층은 전시공간, 3층은 다목적회의실과 전방공간으로 이뤄졌다. 주요 공간은 문화예술존, 지역문화존, 주민친화존 등으로 구분해 다양한 전시작품으로 채워졌다. 문화예술존에는 핀란드 출신의 베

를린 예술대학교수인 세계적 아트디렉터 유시 엔제스레바가 물의 자연적인 현상에 착안한 작품 ‘River Is’가 전시됐다. 지역특화존에서는 남도 문화를 이룬 해상국백제와 금강의 역사를 소개하고, 주민친화존은 향후 지역에 술인의 각종 예술 전시공간으로 활용된다. 영산강문화관 개관의 사전 행사로는 유영숙 환경부장관이 초등학생들에게 ‘재미있는 환경이야기’를 특강하는 등 각종 교육프로그램과 공연 등이 마련됐다. /최권일기자 czi@kwangju.co.kr

행 항공기에서 시도됐던 이른바 ‘성탄절 속옷 테러’를 모방한 것으로, 더 정교한 폭발물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예멘에 근거지를 둔 단체의 자살테러 미수범은 적발 당시 목표물을 정하거나 항공권을 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CIA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으며 어떤 식으로 신병 처리가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폭발물을 누가 제조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성탄절 속옷테러 시도에 이용됐던 것과 비슷한 점으로 미뤄 알 카에다의 폭탄전문가 이브라힘 알 나시리의 ‘작품’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아리랑 3호’ 18일 새벽 일본서 발사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기후환경부는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 3호를 18일 새벽 1시39분께 일본 다네가시마 발사장에서 발사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아리랑 3호는 앞으로 4년간 685km 상공에서 해상도 70cm급의 고해상도 전자광학 카메라로 공공안전, 재해재난, 국토·자원관리, 환경감시 등에 활용될 정밀한 지상관측 임무를 수행한다. 서브미터급 지구관측위성은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으로 크기가 1m보다 작은 물체도 파악할 만큼 해상도가 뛰어난 게 특징이다. 아리랑 3호는 지난 3월 일본 다네가시마 발사장에 도착해 동승위성인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의 위성 GCOM-W1 등과 기능점검, 연료주입, 발사체와의 접속시험, 페어링 내 탑재 등의 준비를 마쳤다. 아리랑 3호가 발사돼 정상 궤도에 진입하면 약 3개월간 궤도상에서 위성체·탑재체의 기능시험 등을 거쳐 9월부터 본격적인 위성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연합뉴스

특약형 특허등록 : 3개최우수기업으로선정된법원경매정보대한민국대표사이트! 『법원경매』의 길잡이 다와옥션이 함께하는!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하세요! www.dawauction.co.kr 다와옥션 부동산 경매학원 호남유일의 정통 경매학원! 불만족시 수강료 전액환불! 실전기본반 : 매주 수요일 10시 30분 / 저녁 : 7시 (3개월, 14주, 25만원) 실전투자반 : 매주 토요일 10시(임장시 오후까지) (3개월, 14주, 50만원) 수시모집중(기수별 선착순 30명) 국내유명강사 초청 특강(강좌외) 문의 010-4911-4989 (062-268-8949) 남구 월산동 돌고개역 1번 출구/ 신한은행 4층(구.전남경찰청 4거리)

(주)오천경매 투자연구소 경매에 관한 모든상담! 경매투자 실전경매 배우면서 수익 내실 분 배유면서 투자가능 / 회비 330만원 유차권등 특수물건만 투자 투자자 모심 / 법적보장 (주)오천경매 H.010-3605-5000 입찰대리 확실하게 입찰 대리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합니다. 매수 입찰대리 법원인가 오천경매 H.010-4667-9300

대인동상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름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문의)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매매교환 전문 빌딩, 모텔 땅 상가 건물 10억이상~100억이상 건물을 급히 구합니다. 각 지역의골프장 및 예식장을 급매매로 찾습니다. 매수매도대기중 30년 부동산중개비법의 노하우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 높은 수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계속된 상담받고 있습니다. 최기철공인중개사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965-201호 062)956-6660 010-2139-6255 FAX. 956-6608

최기철 공인중개사 사무소 광주, 전라남도 일원의 부자가 치가 높고 보장된 물건을 다량 확보하고 있으며, 어렵고 복잡한 물건(경매, 공매)들을 안정되고 확실하게 고객님의 취향껏 정리해 드릴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30년 이상 부동산 중개 비법의 노하우를 가진 본 업체는 고객님의 고통을 이용해서 수수료나 몇푼 쟁거리에 급급한 무책임한 중개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한번 고객은 평생고객이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전지역의 사우드, 모텔, 오피스텔, 빌딩, 상가, 대지 등 고객님의 소중한 부동산으로 인해 가슴앓이를 하고 계신다면 지금 조용히 상담해 주십시오. 소중한 재산 믿고 맡겨만 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최고의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가 및 사무나 (매매) 지역# 북구 삼각동 (사무나 현 성업동) 면적# 대지 약900평, 건물 : 2500평 지역# 첨단지구 일제동 (무인텔 금매) 면적# 대지 : 338평, 건물 : 440평 객실 : 22실 지역# 광안리대일 부근 모달하우스(사무나) 면적# 대지 : 약1000평, 건물 : 2803평 지역# 동산동 대지 314평 매매 지역# 수완지구 롯데이마트상권 빌딩상가 매매 및 분양 중 최상의 전원주택 부지 적합 지역# 담양 1만평~2만평이상 5만평~10만평 지역# 정성 1만평~5만평 (각 타지역의 토지 또한 대량 보유하고 있음) 956-6660-010-2139-6255